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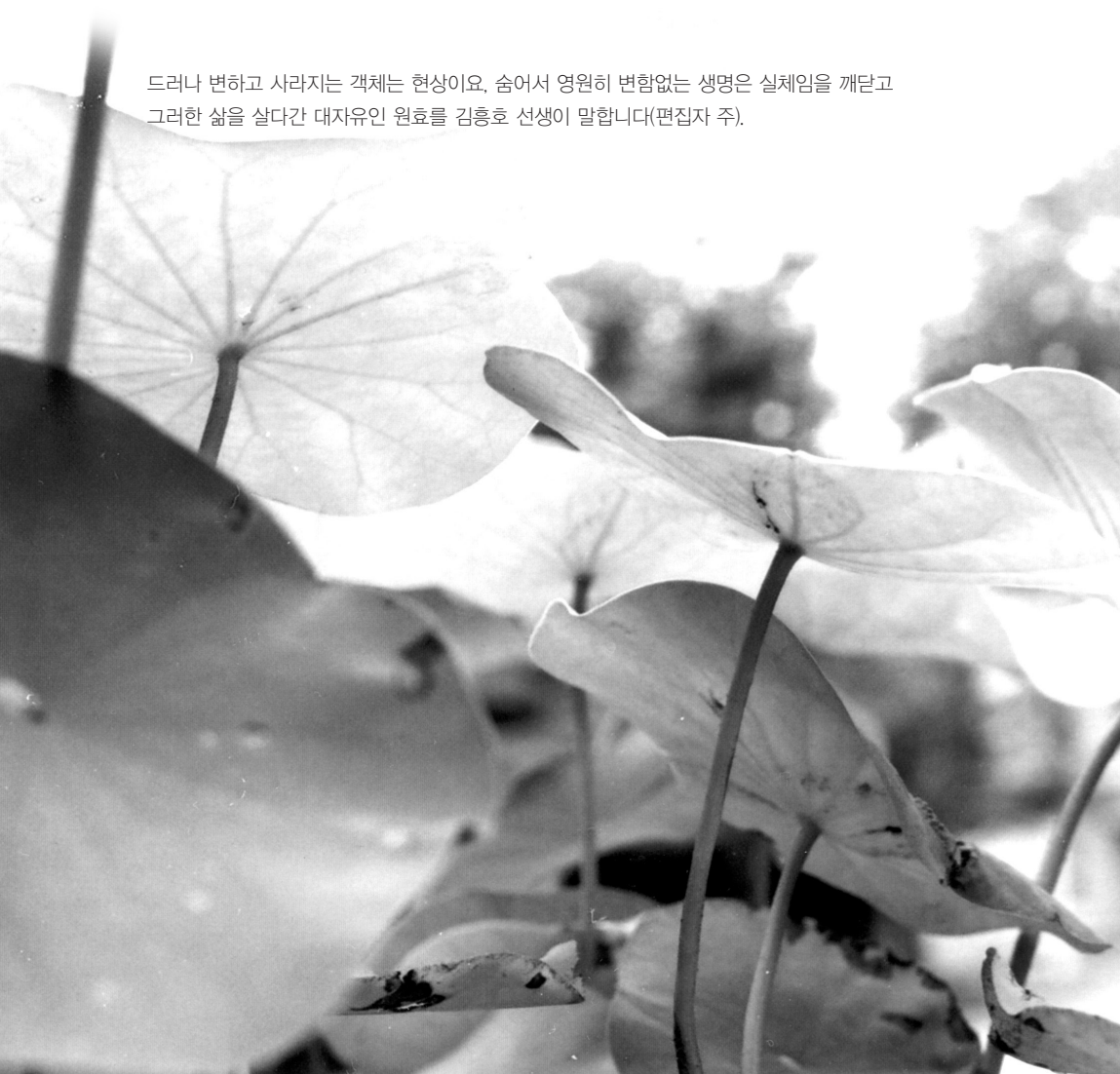
김홍호 칼럼 삶의 핵심에 이르는 사람들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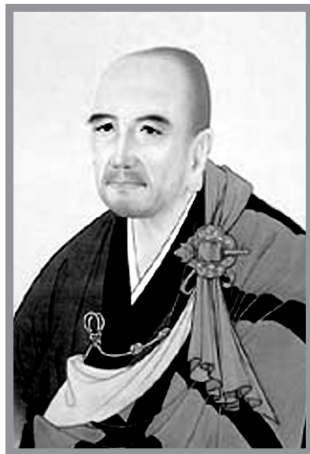
元曉

생명은 언제나 숨어서 그 깨끗함을 유지해간다

| 김홍호 |

드러나 변하고 사라지는 객체는 현상이요, 숨어서 영원히 변함없는 생명은 실체임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다간 대자유인 원효를 김홍호 선생이 말합니다(편집자 주).





첫 새벽이란 이름이 좋다. 이 땅의 첫 새벽이요, 온 누리의 첫 새벽이다. 원효! 하면 큰 표주박을 들고 광대처럼 춤을 추며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른다.

〈불법을 닦은 나라, 그 모양이 어떠한고. 백성은 다 충신이요, 아들 딸은 효자로다. 악귀가 물러가고 신선이 모여드니 우순 풍조하고 국태민안하다. 산모양 들모양도 얼굴이 변하고 날짐승 길벌레도 악심을 떼었으니 현세, 즉 극락이라, 이 아니 보국이나. 어허 기쁘지고, 지화자 좋을씨고. 법고 등등 울려 한바탕 춤을 추자.〉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같이 흥에 겨워 노래로 한마음 되고 춤으로 한 몸 되면 고요히 가라앉아 나무아미타불을 깊이 읊조리고, 사람들이 원효에게 눈빛을 모으면 원효는 신이 나서 도둑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원효가 말하는 도둑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였다.

옛날에 유명한 도둑이 살았다. 평생 도둑질을 했어도 잡혀본 일이 없는 대도(大盜)였다. 하루는 그 아들이 도둑의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기뻐 그날 밤으로 아들을 데리고 이웃 마을 큰 부잣집의 담을 넘어 들어갔다. 온 가족이 깊은 잠이 든 후에 방문을 열고 보물이 간직된 장롱 앞으로 가서 아들의 걸과 신발을 벗기고 장롱 속으

로 넣어주며 보물을 꺼내라고 손짓했다. 아들이 보물을 찾고 있을 때 아버지는 장문을 닫은 후 열쇠로 굳게 잠그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뛰쳐나왔다. 집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따라 나가 보았으나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조심조심 문을 잠그고 다시 잠이 들었다.

장롱 속에 갇힌 아들은 내일 끌려 나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그러나 하는 수 없었다. 다만 밝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가만히 누워 있으니 차차 마음이 가라앉아 이런 생각을 했다. 이왕 아침에 죽을 몸이니 사람들 앞에서 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어두운 밤에 남모르게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장롱을 두드리려 사람들을 깨우려고 했다.

그때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왕 깨울 바에야 장롱을 두드리는 대신에 장을 긁어보자. 장을 긁는 소리가 주인에겐 흡사 쥐가 긁는 것으로 들렸다. 주인은 머슴을 시켜 광에 나가 포대를 가지고 쥐를 사로잡으라고 하였다. 머슴은 조심조심 장롱 문을 열었다. 이때 아들은 문을 박차고 화살처럼 뛰어나갔다. 머슴의 발악과 가족들의 소동으로 온 동리 사람들이 뛰쳐나와 뒤를 쫓았다. 캄캄한 밤이라 걸 만 입어도 피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흰 속 만을 입은 아들은 어두운 밤이었지만 숨을 길이 없었다. 뛰고 뛰다가 동리 어귀에 나왔을 때는 거의 붙잡히게 되었다. 동리 어귀에는 우물이 있고 그 옆에는 돌이 있었다. 아들은 뛰면서 속옷을 벗어 돌과 같이 우물에 집어넣고 자기는 숲 속으로 몸을 숨겼다. 동리 사람들은 우물을 들여다보며 허연 것이 뜬 것을 보고 도둑이 투신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들은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깨웠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몇 시냐고 물었다. 아들은 어이가 없어 두 시라고 말했다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돌아왔을 때는 네 시나 되었는데

일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도도 기구도 아니고 마음이요, 사람이다.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되고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마음을 잡으면 사람이 되고 마음을 놓치면 사람이 안된다.
어디서나 주인이 되면 그것이 곧 극락이다.

데 너는 배나 일찍 돌아왔으니 나보다 갑절 훌륭한 도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

과연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원효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도둑 이
야기가 흥미진진하였고, 남의 일 같지 았다.

사람은 누구나 께짜 속에 갇힌 운명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힘으
로 이 운명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다. 그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
다. 그것이 「금강경」의 오의(奧義)라는 것을 아는 이는 원효 밖에 없었
다. 원효는 그것이 불교의 극치임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 원효의 인품
에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감화되어 가고 있었다.

원효가 살던 신라는 황금시대를 지향하고 있었다. 원효의 장인은
김춘추요, 김춘추의 처남은 김유신이다. 두 장수가 쌓아 올린 성 안에
원효의 화기로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다. 평화스러운 그의 얼굴과 온
화한 그의 마음은 백으로 갈라지고 천으로 찢기었던 얼음장 같은 사람
들의 마음을 화창한 봄바람으로 다 녹여 버릴 수가 있었다.

석가는 불교를 시작했고 나가르주나(龍樹)는 소승불교를 대승불교
로 고쳐 놓았다. 원효는 용수 이후 사백지체로 갈기갈기 분열되어 전
체의 생명을 잃어버린 불교를 사랑의 봄빛으로 다시 일체로 환원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정신문화의 위대한 창조자요, 동양 문화사상
에 영원불멸의 금자탑을 쌓아놓은 은인이었다. 인도불교는 서론적이
고, 중국불교는 본론적이요, 한국불교는 결론적이다. 일생을 통하여

백부의 경론을 주해하고 수백 권의 대저술을 남긴 것도 용수 이후에 따를 사람이 없거니와 그 가운데서도 불교 교리상 가장 어렵고 시비거리가 되는 열 문제를 골라서 한 칼로 흐트러진 실을 베어 내듯이 백가의 쟁송을 일미의 불법으로 돌이킨 원효의 이성은 북극의 얼음보다도 더 냉철한 데가 있었다.

원효의 봄은 찬 겨울을 지난 후의 봄이었다. 하나의 파계승이 되고 거지가 되어 간간 벽지를 배회하면서 그는 한없는 쓰라림을 맛보았다. 그가 강원도 어느 절간에 밥을 들여놓았을 때 그는 절간에서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머슴이 되었다. 3년간을 작정하고 일하는 속에서 자기를 죽여가고 있었다. 절간의 젊은 학승들은 불도를 배우기에 열심이었다. 그들이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고 읽는 글은 원효가 해석한 「금강경주석」이었다. 원효는 그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요강을 닦았다. 그 절의 주지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밤낮 먹고 뒹구는 게으른 주지였다. 고작 하는 일이라곤 하루에 한 번씩 젊은 중들이 공부하러 들어간 틈을 타서 부엌으로 찾아와 누룽지를 얻어가는 것 뿐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룽지 얻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원효는 이 절간에서 볼 것을 다 보았다. 그는 또다시 새 일터를 찾아서 길을 떠난다. 절간에서 공부하는 모든 중들이 원효의 길 떠남을 아쉬워했다. 이렇게 충실한 머슴을 또다시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더욱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도록 섭섭해 하는 이는 누구보다도 주지스님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원효가 나가면 자기를 위하여 누룽지를 마련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누룽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젊은 중들에게 작별하고 길을 떠나는데 늙은 주지는 그대로 계속 따라왔다. 결국 마을 밖의 언덕까지 따라오게 되었다. 날은 무더웠다. 얼마 안되는 피산자 보파리 때

문에 원효의 등에서는 땀방울이 맺힌다. 주지는 숨이 차서 원효더러 언덕 위에서 잠시 쉬어 가자고 당부한다. 원효도 길가에 놓인 돌 위에 주저앉고 주지도 나무 그늘에서 땀을 거둔다. 원효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절간을 뒤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고생만 했지만 그래도 무엇인지 마음에 끌리는 데가 있어 얼빠진 사람처럼 멀리 절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인지 감개무량한 데가 있었다.

그때 돌연 하늘이 터지는 듯 무서운 목소리로 ‘원효!’ 하고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깜짝 놀라 정신을 가다듬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주지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원효를 부른 것은 주지였다. 이것은 원효에게 청천벽력이었다. 삼 년 동안 자기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멸시한 이 주지가 자기가 누구임을 알고 있었다니 원효는 주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주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원효, 숨으려면 귀신도 모르게 숨어야지, 나 같은 것한테 들켜서야 어디 살 수 있겠소?”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이 한 마디에 원효의 모가지는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터덜터덜 언덕길을 내려가 염병이 도는 마을로 가서 시체를 묻고 병자를 돌보기도 하고 거지와 같이 자고 도적과 같이 길을 걸으면서 그들을 구해내는 불사신이 되었다. 숨으면 살고 들키면 죽는다.

원효에게는 일생 동안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누룽지 스님이요, 하나는 방울 스님이었다. 그 더러운 돌중들의 깊은 속에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맑은 샘이 흐르고 있었다. 샘은 깊을수록 그 물이 깨끗하다. 땅속의 지하수는 영원히 보이지 않으리라. 보이면 역시

더러워지고 썩어버린다. 생명은 언제나 숨어서 그 깨끗함을 유지해 간다. 나타난 것은 마음도 생명도 아니다. 생명은 주체요, 그대로 실재다. 객체는 변하고 현상은 없어질지 모르나 숨은 생명은 영원히 변함없는 절대적 실체다. 원효도 두 스님에게 뒤질 인물이 아니었다. 원효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둘씩 자기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범부(凡夫)로서 성인을 창조하려는 원효가 원하는 바는 남의 온갖 모욕을 달게 받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정진하였다. 그는 끝내 무애도의 실천자가 되어 필경에는 자유인 원효가 된다.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 이것이 원효의 내용이다. 생사를 벗어나 보니 모두가 다 자유인이라는 것이다. 천촌만락의 인민들도 미치광이가 아니라 불보살의 화신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 얼음같이 싸늘한 인심 속에서 갈가리 찢어진 사회를 걸어가면서 그는 백천경론(百千經論)과 수많은 종파의 궁극의 목표가 정편지(覺)을 얻는 데 있음을 가르치고 보현행원을 닦아(보살도) 불도를 성취하여 우주가 비로자나불의 화신이요, 십방세계가 불국임을 행(行)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그저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겨울의 행을 가기 전에 가을의 달빛을 본 것이다. 원효가 31세 되던 해, 의상과 더불어 당나라에 가서 불도를 배우고자 요동반도를 지나가다가 옛 무덤가에서 자게 되었다. 밤이 깊어 목이 말라 손으로 더듬어 물을 마시고 아침에 그것이 해골에 담긴 물인 줄 안 후 기분이 나빠 토하다가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장난임을 깨닫고 마음이 나면 모든 사물과 법이 나는 것이요, 마음이 죽으면 곧 해골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도도 기구도 아니고 마음이요, 사

람이다.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되고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마음을 잡으면 사람이 되고 마음을 놓치면 사람이 안된다. 어디서나 주인이 되면 그것이 곧 극락이다. 불도란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열등의식과 사대주의를 벗어나 내가 환경의 주인이 되고 나라가 세계의 일원이 되면 그것이 불도다. 김춘추, 김유신이 칼을 가지고 지킨 나라를 대안이나 원효는 표주박을 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아를 찾아주고 국가의식을 심어주었다.

원효를 보살이니 성자니 하지만 원효야말로 한국 사람이요, 하나의 인간이다. 나를 찾고 남을 보살펴준 사람, 나를 알고 나라의 소망과 생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 그가 바로 원효다. 

- 이 글은 '길을 찾은 사람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현재 김흥호 선생은 매주 일요일 이화여대 교회에서 성경과 동양의 고전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길을 찾은 사람들

김흥호 저 | 도서출판 솔 | 9,000원

종교철학과 교수를 지낸 저자의 산문집. 70년 11월부터 82년 10월까지 월간 <사색>에 실렸던 글과 친필 일기를 모아 엮었다. 종교적 실존, 무극이태극, 성즉리, 꿈 등 37편의 글과 70년부터 82년까지의 짧은 일기글을 수록했다.

